

##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석다솜<sup>1</sup>, 이상래<sup>1\*</sup>, 김윤호<sup>2</sup>

<sup>1</sup>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sup>2</sup>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 The Improvement Measures of Young Farmer Fostering Policy

Da-Som Seok<sup>1</sup>, Sang-Lae Lee<sup>1\*</sup>, Yun-Ho Kim<sup>2</sup>

<sup>1</sup>Farm and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p>2</sup>Export Agriculture Suppor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여러 지원정책과 사업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황, 주 재배작목 유형, 영농정착단계별 장애요인,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청년농업인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청년농업인을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으로 구분한 결과, 후계농업인의 연간 매출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농의 36.9%, 후계농의 30.9%가 채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농초기단계 장애요인으로는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크고, 농장경영단계에서는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농업인은 시설현대화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영농정착지원금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농지의 임대·취득 사업 이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청년농업인이 투자자본을 확보 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농지은행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여 정보제공과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farming among young farm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Young Farmers Farming Settlement Support Project" and sought their opinions on this projec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ccessor farmers had higher annual sales than start-up farmers. Second, 33.1% of young farmers were growing vegetable crops. Third, the timing of funds sourcing was proving to be an obstacle as management funds were secured in the early stages of farming, and this was not adequate for investment in facilities required in the management stage of farming. Fourth, young farmers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the farming settlement support fund, and support for facility modernization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program. The study also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farmland rental and acquisition projects to revitalize young farmers. In conclusion, the policy to support young farmers should be improved with a move towards subdividing and supporting start-up farmers and successor farmers. Also, to secure management funds and capital for facility investm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uitable environment for young farmers to reinvest. In particular, since the current farmland bank is not playing its role adequatel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it into a platfor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Keywords** :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Young Start-up Farmer Fostering Policy, Young Farmer Support Policy, Revitalize Policy

본 연구는 2022년도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사업(과제번호: PJ01506804)의 의해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ang-Lae Lee(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mail: sllee@korea.kr

Received February 9, 2022

Revised March 29,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 1. 서론

현 시대의 농업,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와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2.0%, 약 62만 명이었고, 만 40세 미만의 청년인구의 비율은 0.7%, 약 6천 명에 그쳤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는 약 224.5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 명이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농촌인구는 연평균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고령화는 단순히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의 감소로만 볼 수 없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으로 인해 농업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농촌의 활력도 저하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감소는 고령인구의 사망으로 인한 농촌지역 인구 감소, 농촌 유입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지역의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결국에는 농산물 수급문제, 식량안보로 번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농촌 인구의 확보를 위한 젊은 농업인이 아닌 농산업경영체의 담당자로서의 젊은 인력확보가 중요하다[5].

정부는 농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후계농업청년인구를 농촌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1981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이어, 2017년에는 '청년 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 가운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역기반이 약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청년인구의 농촌 유입이나 창농단계에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농업기술 향상 등의 농업인으로서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도입취지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인구와 소멸위기가 도래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70년대의 농업계 학교 육성'과 '80년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농업인력 확보에 노력하였고, '90년대에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설립·운영하여 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후계농업인 육성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인구의 농촌유입과 농업인구 증가를 위해 힘써왔다.

최근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원사업은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년 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제도를 구축하였다.

### 2.2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농업·농촌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한계점은 여러 선행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Kang 등[1]은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농업·농촌으로 인력의 유입과 정착, 성장시키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자금, 기술, 경영 등의 전반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농업인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 등 [4]은 청년창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실태와 요구에 대한 진입유형 및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육성체계에서는 청년농에 대한 인제상, 비전,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지역단위 청년 창농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그 외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의 기본 방향을 '지역참여 거버넌스 기반의 창농 단계별/창농 유형별 종합지원을 통한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창업단계별 장애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생활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고,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센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Kim [2]와 Ma 등 [3]에서는 각각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a 등 [3]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정책목표를 자금지원이 아닌 청년 농업인 인력육성으로의 방향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전담지원조직의 마련과 민간 주도의 육성기반을 지원을 제안하였다.

Kim [2]은 현재 일괄적인 형태의 지원정책을 청년농업인의 유형과 목표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다. 창업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은 각자 요구하는 바와 영농 목표가 상이하기에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정책에서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현장에서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청년농업인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청년농업인이 농업과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는 자금조달 이외에도 영농기술의 부족, 농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농유형별 영농정착실태와 정착단계별 지원정책의 만족도,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농업인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3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329명 중 40세 미만의 청년창업 농업인은 122명, 후계농업인은 207명이 참여하였다.

#### 3.2 청년농업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농업인들의 유형을 창업농 집단과 후계농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창업농 집단에서는 남성이 69.7%, 여성이 30.3%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약 34세였으며, 평균 재배경력은 약 1.5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후계농 집단에서는 남성이 79.7%, 여성이 20.3%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약 33세, 평균 재배경력은 약 2.2년으로 나타났다. 창업농 집단의 51.6%, 후계농 집단의 52.2%는 미혼으로 조사되었

으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비율도 각각 창업농이 5.7%, 후계농이 13.5%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평균을 보면 창업농 집단은 약 3천 5백만 원, 후계농 집단은 약 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매출액 평균의 차이는 후계농 집단이 창업농 집단에 비해 약 1천 5백만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Characteristic of Young Farmers  
(Person, Years, Thousand Won)

Categories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Gender	Male	85 (25.8%)	165 (50.2%)
	Female	37 (11.2%)	42 (12.8%)
Age Group	20s	27 (8.2%)	56 (17.0%)
	30s	74 (22.5%)	125 (38.0%)
	40s	21 (6.4%)	26 (7.9%)
Marital status	Marriage	52 (42.6%)	71 (34.3%)
	Separated	7 (5.7%)	28 (13.5%)
	Single	63 (51.6%)	108 (52.2%)
Cultivation History (Mean±S.D)		1.5 ± 1.29	2.2 ± 2.23
Annual Sales	Mean (±S.D)	35,340.2 (±119,639.4)	50,230.8 (±95,290.6)
	Median	4,000	10,000

#### 3.3 주 재배작목의 유형

청년농업인의 주 재배작목으로는 Table 2와 같다. 주 재배작목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채소류로(33.1%) 나타났고, 과일(24.0%), 식량작물(18.8%), 축산(16.7%), 특용작물(4.9%), 화훼(2.4%)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의 33.1%가 채소를 주 재배작목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후계농에 비해 창업농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채소작물이 다른 작목에 비해 환금성이 높고, 조성비용이 크지 않은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Cultivate on Crop type of Young Farmer  
(Person, %)

Categories	Total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Vegetable	<b>109 (33.1)</b>	<b>45 (36.9)</b>	<b>64 (30.9)</b>
Fruits	79 (24.0)	26 (21.3)	53 (25.6)
Food Crops	62 (18.8)	19 (15.6)	43 (20.8)
Livestock	55 (16.7)	17 (13.9)	38 (18.4)
Specialized Crop	16 (4.9)	12 (9.8)	<b>4 (1.9)</b>
Floriculture	<b>8 (2.4)</b>	<b>3 (2.5)</b>	5 (2.4)

### 3.4 영농정착단계별 장애요인

Table 3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단계와 경영단계에서 느끼는 장애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영농 초기단계와 농장 경영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영농 초기단계에 있는 창업농 집단과 후계농 집단 모두 영농활동을 위한 경영자금 확보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선택했다. 또한 농지확보와 기본 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영농기술 습득, 유통채널의 확보, 농가 주택 확보 등의 장애요인도 영농 초기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농장경영단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농장경영단계에서도 창업농 집단과 후계농 집단 모두 시설·설비를 위한 투자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선택했다. 또한 운영자금의 부족과 농지확보의 어려움, 낮은 농업소득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부족, 영농기술의 부족 등의 장애요인도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각 단계에서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금의 부족이었다. 현재 지원 사업은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약 80~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매월 지급되고, 영농 기반 등의 확보를 위한 정착자금 약 3억 원을 연 2%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과 정책자금을 이용하더라도 청년농업인들은 영농활동에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 3.5 정착 후 지원정책의 중요도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육성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들 가운데 청년농업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지원정책으로는 ‘농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전체의 43.6%가 응답했다.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해 창업농의 45.8%, 후계농의 42.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로 ‘품목 전문교육’이 전체의 27.9%로, ‘강소농 교육’이 11.9%, ‘품목 조직화’가 9.0%, ‘예비 청년농 멘토농가 선정지원’이 7.7%로 나타났다.

Table 3. Barrier Factor on Farming

(Person, %)

Stage	Factors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E a r l y S t a g e	<b>Find a agricultural management funds</b>	<b>84 (27.4)</b>	<b>135 (25.6)</b>
	Find a Farmland	64 (20.8)	121 (22.8)
	Find a Basic Living Expenses	44 (14.3)	91 (17.1)
	Acquisition of Farming Skills	33 (10.7)	51 (9.7)
	Find a Distribution Channels	21 (6.8)	42 (8.0)
	Find a Rural House	24 (7.8)	27 (5.1)
	Find a Local Mentors for Comprehensive Mentoring	17 (5.2)	25 (4.4)
	Understanding of Family	7 (2.3)	19 (3.6)
	Find a basic Counselling Desk	6 (2.0)	11 (2.1)
	Select a Return Farming Area	6 (2.0)	4 (0.8)
F a r m M a n a g e m e n t S t a g e	<b>Lack of Investment Capital (Facilities)</b>	<b>67 (23.1)</b>	<b>109 (21.5)</b>
	Lack of Operating Funds	63 (21.7)	102 (20.1)
	Difficulty in Find a Farmland	54 (18.6)	100 (19.7)
	Lower Agricultural Income	35 (12.1)	48 (9.4)
	Lack of Labor	26 (9.0)	46 (9.1)
	Lack of Farming Skills	19 (6.6)	37 (7.3)
	Difficulty in Distribution Channel	14 (4.8)	37 (7.3)
	Lack of Agricultural Experts Around	5 (1.7)	16 (3.1)
Don't Know How to Analyze Farm Management	7 (2.4)	13 (2.6)	

Table 4. Importance of Support Policy After agricultural Settlement

(Person, %)

Support Policy	Total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b>Modernization of Farm Facilities</b>	<b>136(43.6)</b>	<b>54 (45.8)</b>	<b>82 (42.3)</b>
Crops Specialized Training	87 (27.9)	32 (27.1)	55 (28.4)
Strong Small Farm Education	37 (11.9)	16 (13.6)	21 (10.8)
The Organized of a Crops Union	28 (9.0)	6 (5.1)	22 (11.3)
Support for Selecting Mentor Farms for Preparation Young Beginning Farmer	24 (7.7)	10 (8.5)	14 (7.2)

### 3.6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만족도

여러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8개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평가 대상이 된 지원정책으로는 각각 정착 장려금 지원, 창업농(취업농)에 대한 기본상담, 영농 기술 및 경영관련 교육·연수, 멘토 또는 기존 주민단체와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농기계 및 시설의 취득·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농가주택 취득·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이었으며, 언급된 순서대로 청년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각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Table 5와 같다.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정착 장려금 지원, 창업농(취업농)에 대한 기본 상담, 영농기술 및 경영관련 교육·연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가 주택과 농지의 취득 및 임대 관련 소개·알선관련 지원 정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atisfaction with Support Policy (Average)

Categories	Total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Support for Rural settlement Incentive.	3.40	3.45	3.37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farming Technology and Management.	3.29	3.25	3.31
Basic consultation of Start-up Farming. (or Employment at an Agricultural corporation)	3.23	3.27	3.21
Supporting exchanging to mentors, local residents, related group.	2.93	2.95	2.92
Introduction and recommend to Agricultural machinery, Facilities acquisition or lease.	2.84	2.89	2.82
Support for pioneering distribution channel to agricultural products, and Marketing.	2.78	2.81	2.75
Introduction and recommend to Rural housing acquisition or lease.	2.63	2.61	2.64
Introduction and recommend to Farmland acquisition or lease.	2.42	2.43	2.41

### 3.7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지원사업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현장에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방안들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활성화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것은 '농지 취득 및 임대 사업 확대'가 전체의 25%(창업농의 22.1%, 후계농의 23.3%)로 나타났다. 그 뒤로 '정착단계별 세분화된 정책지원'이 19.9%, '농협-지자체-농업기술센터 의 연계 윈스톱 서비스'가 17.9%,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이 14.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자체의 청년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농촌 가치에 대한 홍보', '농촌 체험기회 확대'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6. Measure to Revitalize Young Beginning Farmer (Person, %)

Support Policy	Total	Young Beginning Farmer	Successor Farmer
Expansion of Farmland Acquisition, Rental Business	161 (25.0)	60 (22.1)	101 (23.3)
Segmentation Support Policy By Settlement Phase	128 (19.9)	53 (19.6)	75 (17.3)
One Stop Service (A Local Government - Agricultural Cooperative - Agricultural Technical Center	115 (17.9)	44 (16.2)	71 (16.4)
Expansion of Rural Life Infrastructure	96 (14.9)	33 (12.2)	63 (14.5)
Empowerment Education of Young Beginning Farmer	73 (11.4)	26 (9.6)	47 (10.8)
Reinforcement of Young Farmer-related Human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	70 (10.9)	29 (10.7)	41 (9.4)
Promoting Agricultural Value.	40 (5.7)	15 (5.5)	25 (5.8)
Expanding Variou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Rural areas.	22 (3.1)	11 (4.1)	11 (2.5)

## 4. 결론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영농정착의 장애요인과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만족도 등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청년농업인들 사이에서도 창업농에 비해 후계농이 연간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농에 비해 후계농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거나 재배작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농업인들의 주 재배작목은 고소득이 예상되는 환금성 작물로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초기 조성비가 높은 화훼, 축산분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적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귀농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경영자금의 확보는 영농 초기단계부터 정착 이후 단계에 걸쳐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농업인의 정착단계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인 수준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매력적인 지원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유형별 정책만족도는 농지 취득과 임대 관련 지원정책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정착 장려금 지원은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자금위주의 지원정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지속하고 고령화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 지원정책은 창업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단순하게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영농기반을 물려받은 후계농업인에 비해 창업농업인은 영농기반이 미비하고, 그로 인해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창업농과 후계농의 여건에 맞춘 세부 정책으로 창업농에 대한 추가 지원 또는 정착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자금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는 지원사업 및 정책 자금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고, 청년농업인은 이를 통해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년농업인에게 부채가 되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거치기간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정책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청년농업인은 거치기간 이후 연간 약 3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연간 3천만 원은 정착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해 자본의 축적이나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할 여력이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적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농지와 농가 주택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주택에 비해 큰 어려움이 있다. 농촌지역 내 휴경지, 고령농의 경지 등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청년농업인들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확보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답한다. 농지은행은 임대 및 매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착지역 내에서 농지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정보를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임대, 매매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Dae-Koo, Kang, Jong-Sang, Lee, Chyul-Young, Jyung, Sung-Sik, Lee, "Strategies to Developing Advanced Agricultural Workforce Under Change of Agricultural Workforce Structur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37, No.1, pp105-130, 200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77162>
- [2] Ki-Hueng, Kim, "Policy Directions for Young Farmers - Case of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Community Development*, Vol.25, No.3, pp.161-173, 2018.  
DOI: <http://doi.org/10.12653/jecd.2018.25.3.0161>
- [3] Sang-Jin, Ma, Dae-sik Park, Kang-Ho Kim, "Evaluation of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0, pp1-207.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biblioId=376557&pageType=010302&pageUnit=10&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7&engView=>
- [4] Sang-Jin, Ma, Eun-Mee, Jeong, Kyung-In, Kim, "How to Advance a Young Beginning Farmers Fostering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pp1-185.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67&biblioid=509975&pageType=>
- [5] Hyang-Mi, Yi, "Factors Influencing Young Farmers' Choice of the Farm Diver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5, No.2, 2019  
DOI: <http://doi.org/10.7851/ksrp.2019.25.2.075>

---

석 다 슝(Da-Som Seok)

[정회원]



- 2017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 및 식품경제 전공 (경제학석사)
- 2020년 4월 ~ 현재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농식품 유통 및 안전, 소득분석

---

이 상 래(Sang-Lae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3년 3월 : 와세다대학교 국제 금융 전공 (경영학석사)
- 2010년 3월 : 요코하마국립대학교 기업금융 전공(경제학 박사)
- 2015년 7월 ~ 현재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금융, 경제

---

김 윤 호(Yun-Ho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1년 2월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02년 10월 ~ 현재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관심분야>

농업경영, 농업경제